

6·25전쟁 초기 육사 생도 참전전투 연구

나 종 남*

1. 머리말
2. 전군 초기 육군사관학교와 생도 1, 2기
3. 사관생도 참전전투
4. 불암산 유격대의 활동
5. 생도 참전전투에 대한 ‘기억’과 ‘기록’
6. 생도 참전전투의 분석과 교훈
7. 맷음말

1. 머리말

6·25전쟁 개전일 오전 11시경, 급변하는 전방의 전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육군본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수도방위에 필요한 병력으로 육군사관학교 교도대와 생도대, 육군보병학교 교도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연대를 편성하였다.¹⁾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정부 정면의 국군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전쟁사 부교수

** 이 논문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2011년도(11-특화-02) 연구활동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1985, 100쪽.

제7사단과 문산 전방의 제1사단 정면의 전황이 악화되었으나 대전, 광주 등 후방에서 올라오고 있던 중원부대의 도착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서울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전방으로 보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13시경에 육사 교도대대와 보병학교 교도대대를 제1사단에 배속하고, 육사 교장에게 생도대대를 이끌고 포천 후방의 서파~퇴계원 축선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²⁾

육군본부의 작전명령 제90호에 의해 육사 생도대대는 전투편성을 마치고 16시경 학교를 출발하여 약 12km 정도 떨어진 포천군과 양주군의 경계에 위치한 부평리(富坪里)로 출동하였다. 전쟁 전에 수립된 육군본부의 방어계획에는 포천 정면의 제7사단 방어선이 뚫릴 경우 후방의 서파~퇴계원 축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유사시 서울 방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동북부 관문이었으나, 이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병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³⁾ 바로 그곳에 임관을 20여일 앞둔 육사 생도 1기와 입교한 지 불과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생도 2기 약 530여 명으로 구성된 생도대대가 출동하였고, 이들에게 전투임무가 부여되었다.⁴⁾ 그 임무는 포천을 점령한 후 서울의 동북쪽에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주력부대를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었다.

탄약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방어진지를 편성하며 적을 기다리던 사관생도들의 머리 위에 적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다음 날 오전 10시경이었다. 그리고 오후 4시경에는 대규모 적 병력에 의한 정면 공격이 개시되었고, 이후 치열한 백병전이 이어졌다. 생도대대는 이날 부평리 전투에서 적의 진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데 성공하였으나,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제2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386~387쪽.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00쪽.

4) 1949년 5월 7일 모집 공고에는 “제1기 육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이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 기간 중는 “생도 1기”로 호칭하였으나, 임관 이후에는 육사 10기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1950년 6월 1일 입교한 “생도 2기”는 6·25전쟁으로 인해서 육사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호칭은 여전히 “생도 2기”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육사 10기는 “생도 1기”로, “생도 2기”는 그대로 사용한다.

인명손실이 많았고 탄약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태릉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불암산과 육사 교정의 92고지를 연하는 구릉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한 생도대대는 6월 27일 밤과 6월 28일 새벽에 또다시 치열한 전투를 치렀고, 여기에서도 많은 생도들이 죽고 다쳤다. 한강교가 폭파되고 서울이 적에게 함락되는 줄도 모르고 적과 맞서 싸우던 생도들은 6월 28일 날이 밝아서야 모교를 떠나 적진을 헤치고 한강방면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계속되는 후퇴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적진에 남아서 계속 싸우기를 결심한 생도들도 있었다.

한강방어선이 형성된 이후에도 생도대대의 전투임무는 계속되었다. 서울 실함과 초전에서의 패전으로 인해 어수선하던 한강에 국군의 급편 방어선이 형성되는데 기여하던 생도대대는 7월 3일에는 한강을 도하한 적 선두부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판교 인근의 금곡리에 배치되었다. 약 6시간동안 지속된 마지막 전투에서 생도대대는 적의 진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전차를 앞세운 적의 공격에 맞서느라 인명 손실이 심각했다. 금곡리 전투가 끝난 이후 생도대대는 상부의 명령에 의해 평택을 거쳐 7월 6일에 육군본부가 임시로 자리 잡은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개전 이후 약 10여일간 치러진 수차례의 전투에서 사관생도 20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⁵⁾ 이 글은 1950년 6월 25일부터 약 10여일 동안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전투원의 신분으로 전선에 뛰어들어 치렀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전쟁사에서는 장교가 아닌 사관생도나 장교 후보생이 전투에 참전한 경우를 간혹 발견할 수 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 5월에 남부연합군은 버지니아주립사관학교(the Virginia Military Institute)의 생도 257명을 뉴 마켓(New Market)이라는 곳에 출동시켜 정규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대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점차 전세가 어려워지자 남군 지휘부는 생도들을 전투에 참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6명의 생도가

5)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전공 동문 활동을 중심으로〉, 1997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구보고서, 32~33쪽.

전사하였다.⁶⁾ 같은 해 12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사관학교(the South Carolina Military Academy)의 생도 334명도 전투에 참전하여 다수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⁷⁾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의 프랑스 침공 시 프랑스 육군기병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장교 후보생들이 실전에 투입되었으나, 대부분 포로로 잡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서도 멕시코군이 사관생도들을 전선에 투입한 사례가 있었다.⁸⁾ 하지만 사관생도나 장교 후보생을 전선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이 있었는데,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관 이전의 교육생을 전선에 투입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은 본토에 대한 미군의 상륙작전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사관생도와 장교 후보생을 전선에 내보내지 않았다.⁹⁾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을 전선에 보내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더 나아가 장차 국가의 간성으로 성장할 인재들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위험에 처했던 6·25전쟁 초기 10여일간 육사 생도들이 전투원 신분으로 전선에 투입되어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는 사실은 지난 60여년 동안 우리 사회와 군대의 제한된 공간에서만 공유되었다. 특히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언론과 사회, 심지어 군대에서도 이들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려웠다. 전쟁이 남긴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전쟁 중에 발생했던 아픈 기억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웠던 것은 이해할 만한

6) Susan P. Beller, *Cadets at War: The True Story of Teenage Heroism at the Battle of New Market*(New York: iUniverse, 2000); John G. Hundley, "The Cadets at New Market", *Richmond Then and Now*, March 6, 2013, (<http://www.richmondthenandnow.com/Newspaper-Articles/Battle-of-New-Market.html>) (검색일: 2013.4.20.)

7) William H. Buckley, *The Citadel and the South Carolina Corps of Cadets* (New York: Arcadia Publishing, 2004), p.23.

8) Karl J. Bauer, *The Mexican War, 1846~1848*(New York: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4); "Mural of Cadet Jumping"(http://www.usmcmuseum.org/Museum_LoreCorps.asp) (검색일: 2013.4.20.)

9) 장창국, 『육사졸업생』, 서울: 중앙일보사, 1984, 333쪽.

일이지만, 참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조사에 관심을 기울이던 시기에도 사관생도 신분으로 전선에 투입되었던 이들에 대한 관심은 제한되었다. 더구나 1951년 10월부터 4년제 정규 교육과정을 도입한 ‘새로운 육군사관학교’가 출범하여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어려웠던 시기에 조국을 지키다가 죽어간 생도들에 대한 기억은 좀처럼 기록으로 자리 잡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1968년에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출간한 『한국전쟁사』 제2권은 광범위한 자료 수집, 참전자들에 대한 구술 등 포괄적 사료조사를 통해서 점차 잊혀져가고 있던 생도 참전전투의 기억을 역사적 사실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첫 번째 시도였다.¹⁰⁾ 그리고 1978년에는 남상선에 의해 『불멸탑의 증언: 육사생도대 실전기』이 출판됨에 따라 육사 생도들의 참전 사실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¹¹⁾ 이 책의 저자는 직접 전투에 참가했던 생도 1기 출신인데, 책의 내용 대부분이 동료들과 관련자의 구술에 근거했다는 한계는 있으나, 이 책의 출판은 생도 참전전투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실체가 분명한 ‘기록’으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국방부와 육군에서 발간한 6·25전쟁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에 생도 참전전투가 포함되었고, 생도들의 모교인 육군사관학교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약 10일 간 전선에 투입된 육군사관학교 생도 1기와 2기의 사례를 분석할 이 글은 먼저 생도 1기와 2기의 참전 경위와 과정, 결과를 정리하고, 소수의 생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여 활동한 불암산 유격대의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지난 60여년 동안 생도 참전전투에 대한 ‘기억’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기록’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마지막에서는 생도 참전전투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과 현대적 합의를 분석할 것이다.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1968, 142~145쪽.

11)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육사생도대 실전기』, 서울: 육법사, 1978.

2. 건군 초기 육군사관학교와 생도 1, 2기

육군사관학교는 창군과 건군 초기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육군의 유일한 장교 양성기관이었다. 육군사관학교가 군 교육기관으로서 처음 활동을 시작한 때는 1946년 5월 1일이며, 이때 붙여진 공식 명칭은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國防警備士官學校)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1946년 1월 14일에 창설된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모체로 삼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육군사관학교의 전신(前身)은 군사영어학교(軍事英語學校)까지 소급할 수 있다.¹²⁾ 군사영어학교는 1945년 12월 5일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의 감리신학교 자리에서 문을 열었는데, 장차 조직될 국방경비대를 주도할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 군정이 운영했던 곳이다. 미 군정은 뱀부계획(the Bamboo Plan)에 기초해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신속하게 확장하려 하였으나, 당시 남한에는 자격을 갖춘 간부요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군 경력자를 위주로 교육하던 군사영어학교를 해체하고, 태릉에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새롭게 설립하여 경비대 확장에 필요한 간부 양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¹³⁾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6년 5월 초부터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가 태릉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학교의 개교 당시 첫 학생은 군사영어 학교에서 임관하지 못한 60명과 경비대의 각 연대에서 2~3명씩 선발된 병사 28명 등 모두 88명이며, 이들이 육사 제1기이다. 미 군정은 이 학교를 Korean Constabulary Training Center(조선경비대 훈련소)라고 호칭하였으나, 한국인들은 ‘경비사관학교’라고 불렀다. 그리고 1946년 6월 15일 발령된 군정령 제86호에 의해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조선경비대로

12) 군사영어학교의 영어 명칭은 the Military Language School이며 ‘군사언어학교’로 번역할 수 있으나, 개교 당시부터 한국인들은 ‘군사영어학교’로 불렸다. 한용원, 『창군』, 서울: 박영사, 1984, 72쪽.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군사』, 2002, 134~141쪽.

개칭됨에 따라 학교의 명칭도 ‘조선경비사관학교’로 변경되었다. 경비대의 주축인 장교들을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조선경비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5일에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로 개칭되었다.¹⁴⁾

이후 경비대에 필요한 초급 및 중급간부를 양성하는 2년 4개월 동안 조선경비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했다. 이 기간 중 배출한 인원은 1기부터 7기까지 약 2,100여 명인데, 이 시기에 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후보생들은 과거에 군사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현역 가운데서 선발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기간은 약 2~3개월 정도로 짧았으며, 매 기수마다 교육과정과 내용도 달랐다. 5기와 7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관후보생을 선발하였는데, 다른 기수에 비해서 기간이 늘어난 약 6개월 정도였다. 한편 7기와 8기에 한해 특별반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 제도는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해외 군사 경력자들을 입교시켜 단기간의 교육 후 임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교육기간이 짧았다.¹⁵⁾

육군사관학교로 명칭을 바꾼 이후 장교 양성교육에 몇 가지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선 체계적인 장교 교육을 위해 그 이전에 비해 교육기간이 늘어났는데, 8기는 22주, 9기는 23주의 교육을 받고 임관했다. 또한 교육 내용도 점차 보완되어 기존의 제식훈련, 기본전술훈련, 화기훈련 외에 국사, 영어 등 일반학의 비중이 늘어났다.¹⁶⁾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계기는 10기를 선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과정 4년제 정규장교 육성안이었다. 이 주장은 당시의 장교육성체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육군본부에서 제기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장차 육군을 이끌어갈 미래의 군사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14) 육사 3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30년사』, 서울: 육군사관학교, 1977, 68쪽. 이하에서는 ‘육군사관학교, 『30년사』’로 약기함.

15) 육군사관학교, 『30년사』, 68~696쪽;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5~9쪽.

16) 육사 5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서울: 육군사관학교, 1996, 55~106쪽. 이하에서는 ‘육군사관학교, 『50년사』’로 약기함.

군사실무와 더불어 일반학적인 소양을 갖춘 초급장교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4년제 교과과정을 담당 할 교수진의 부족, 교육시설의 불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또한 육군의 장교 양성계획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군 인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4년제 정규장교 육성안은 실현되지 못했다.¹⁷⁾

결국 9기와 동시에 모집하기로 한 10기의 모집공고에 따르면 교육과정 은 총 2년이었으며, 지원자격을 고급 중등학교 졸업자 내지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으로 구성된 1차 시험과 인물고사와 구술시험이 포함된 2차 시험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사관생도를 선발하였다.¹⁸⁾ 그 결과 약 1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약 338명이 입교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고 말았다. 육사가 장기간 동안 장교를 육성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신설하기로 계획된 갑종 간부후보생 과정이 지연되었고, 육사 내에 2년제 과정의 교육 을 담당할 교수진과 교육시설이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육사 10기, 즉 생도 1기의 경우 기존에 육사에서 배출한 다른 졸업생에 비해 교육기 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과과정도 짜임새가 있었다. 군사훈련에서는 제식 훈련과 화기조작 등 기초 훈련뿐만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 술훈련이 추가되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일반학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국어, 국사, 수학, 심리학 등의 과목이 추가되었다. 엄격한 내무생활도 시작되어 생도들은 이를 통해서 군대의 규정과 법규를 체질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이전 졸업생에 비해서 수준 높고 치밀한 군사학, 일반학, 내무생활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중에 탈락하는 인원이 적지 않아서, 임관 을 약 3주 앞둔 1950년 6월 25일 현재 생도 1기의 총원은 262명이었다.¹⁹⁾

17)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06~113쪽.

18) 동아일보, 1949년 5월 7일자.

19)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17~121쪽.

생도 1기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습득한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생도 1기때 실시하지 못한 4년제 교육에 대한 열망을 생도 2기에 대해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11월 26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생도 2기에 대한 모집 공고에 의하면 교육기간은 4년제로 명시되었으며, 지원 자격과 시험은 대체로 생도 1기와 비슷했다.²⁰⁾ 이후 1950년 5월 29일에 약 10 대 1의 경쟁을 통해 449명의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이들이 6월 1일에 가입교하였다. 하지만 가입교 직후 실시된 소양시험에서 115명이 탈락하고, 334명만 정식 입교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약 20여일 동안 제식훈련, 사격술 예비훈련, 영점 조준사격 등을 마쳤고, 개전 당일인 6월 25일에는 소총 자격사격을 앞두고 있었다.²¹⁾

3. 사관생도 참전전투

1950년 6월 25일에 개시된 북한군의 전면공격은 국군의 허를 찌르는 기습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습 효과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북한군의 제1군단이 2개의 전차여단을 앞세우고 밀고 내려온 서부전선의 상황이 결정적이었다. 국군 1사단과 7사단은 적을 막기에는 속수무책이었으며, 전선이 붕괴된 상황에서 후방에서 출동한 2, 5사단의 중원은 북한군을 지연하거나 전세를 역전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개전초기에 서부전선에 몰아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군본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육사에 출동명령이 하달되었다. 가장 먼저 교도대대가 전투편성을 완료하고, 6월 25일 오후에 문산 방면으로 출동하였다. 한편 개전 당시 포천지역을 방어

20) 동아일보, 1949년 11월 10일자.

21)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21~123쪽.

중이던 국군 제7사단은 분전하였으나 북한군 제3사단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포천 정면에 대한 방어책 마련에 몰두하였다. 우선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를 포천에 투입하였으나, 이 부대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포천이 적에게 함락되었다. 결국 의정부 정면에 대한 위기와 더불어, 포천이 점령당함에 따라 수도 서울의 북동쪽이 적에게 노출되고 만 것이다.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외곽 방어선 구축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육군본부는 육사 생도대대를 전선으로 투입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전방의 위급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가용병력을 검토하던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이 직접 육사 생도대대를 포천과 퇴계원 방향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때 육군본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은 과거 태평양전쟁 말기에 패전을 눈앞에 둔 일본이 사관생도들을 전장에 내보내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 명령을 재고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채병덕 장군은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다.²²⁾ 이처럼 사관생도에 대한 전선 투입 결정은 육군본부 수뇌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곧바로 육군본부 명령 제90호로 정식 하달되었다.

북한군의 전면공격이 개시되기 전날인 6월 24일, 육사 생도 1기들은 7월 14일로 계획된 졸업과 임관에 앞서 치러질 최종 훈련을 위한 준비에 분주했다. 생도들은 일요일 오후까지 허용된 외출과 외박을 이용해서 6월 말에 예정된 전술행군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거나 체력을 보강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개전 전날 생도대에는 당직근무생도를 포함한 소수의 생도 1기만 남아 있었고, 입교한 지 3주에 불과한 생도 2기는 전원 일요일에 예정된 소총 사격훈련을 앞두고 있었다.²³⁾ 하지만 일요일 새벽에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사관학교는 즉시 전시상태로 전환되었다. 외박 중이던 생도 1기들은 비상소집에 의해 즉시 귀영했다. 비상소집을 직접 전달 받지 못한 생도도 많았으나, 이들은 방송으로부터 북한의 전면 남침소식을

22) 장창국, 『육사졸업생』, 333쪽.

23)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62~64쪽.

접하자마자 바로 학교로 복귀했다.²⁴⁾

사관생도들을 전선에 투입하라는 명령이 육사에 도착한 것은 개전 당일 13시 경이었다. 문서로 하달된 명령은 “육군사관학교장은 육사 생도들로 구성된 전투대대를 편성하여 포천 방면으로 출동하고, 부평리(현 내촌면) 일대의 377고지와 330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 명령서에는 육사 교장에게 서울지역 전투경찰로 구성된 경찰대대를 배속받아 함께 운용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²⁵⁾

교육 중인 사관생도를 전선에 투입하라는 납득하기 힘든 명령이지만, 학교장 이준식 준장은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먼저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조직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생도 1기생 262명과 2기생 277명을 주축으로 생도 전투대대를 편성하였다.²⁶⁾ 그는 또한 생도대대를 지휘할 지휘관으로 학교본부와 생도대에서 근무하는 장교들을 선발하였다. 이때 편성된 생도 전투대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대장과 부대대장은 조암 중령과 손관도 소령이 맡았고, 송인률 대위, 박응규 소령, 이원엽 대위, 박정서 대위가 각각 1, 2, 3중대장과 중화기 중대장을 맡았다. 지휘관 편성에 이어 생도들을 편성하였는데, 이때 고려한 것은 1년 동안 교육을 마친 1기생들에게 지휘자 역할을 부여하고, 가입교 훈련을 받고 있던 2기생들은 소총수로 배치하였다. 그 결과 1기생에게는 소대장, 분대장, 부분대장, 반장 또는 자동소총 사수 등의 직책이 부여되었고, 2기생은 분대원과 연락병으로 편성되었다.²⁷⁾

포천 방면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투입될 생도대대에게 지급된 무기와 장비는 보잘것없었다. 가용한 공용화기는 교육용 박격포,

24)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14~115쪽.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2005, 386~387쪽.

26)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3~24쪽. 생도 2기생의 경우 총 334명이 가입교 하였으나,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잔류하는 소수의 인원과 육군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용산역에 파견될 일부 인원을 제외한 277명만 생도 전투대대에 포함되었다.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14~115쪽.

27)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14~115쪽.

경기관총, 자동소총 정도가 고작이었으며, 이 화기들의 포탄과 탄약이 턱없이 부족했다. 중화기 중대에 지급된 81밀리와 60밀리 박격포 포탄은 고작 50여발뿐이었다. 생도들에게는 개인화기가 지급되었는데, 용산역에 파견될 생도들에게는 일본군이 사용하던 99식 소총이나 카빈 소총이 지급되고, 포천방면으로 출동하는 생도들에게는 미군이 남기고 간 M1소총이 지급되었다. 실탄은 M1 소총의 경우 개인당 56발 정도가 지급되었다.²⁸⁾

위급한 전선을 향한 생도들의 출동은 신속했다. 오후 3시경에 편성을 마친 생도대대는 징발된 트럭을 타고 학교를 출발하여 퇴계원과 광릉입구를 거쳐 20시경에 부평리에 도착했다. 생도대대가 도착한 부평리는 포천에서 서울방향으로 내려오는 326번 도로(現 325번 도로)와 현리 방면에서 남쪽으로 연결된 391번 도로(現 47번 도로)가 교차되어 “Y자형” 도로를 이루는 곳이며, 경기도 양주군과 포천군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포천군 내촌면 팔야리였다. 이곳에 하차한 생도대대는 주변에서 지형을 감제하기에 가장 높은 고지인 도로 서쪽의 372고지에 배치되었는데, 도로 건너편 동쪽 330고지에는 함께 작전을 펼칠 예정인 경찰대대가 담당할 예정이었다.²⁹⁾

부평리 372고지에 도착한 생도들은 신속하게 전투 준비에 착수하였다. 고지 정상에 지휘소를 편성한 생도대대는 도로 정면을 중심으로 좌측에 1중대, 우측에 2중대, 중앙 후사면에 3중대를 배치하고, 중화기 중대는 372고지 우측 후방에 박격포 진지를 편성하였다. 또한 대대 방어진지 전방 약 1km 지점에 위치한 내리(內里) 부근에 경계병을 배치하여 야간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이처럼 전선에 투입된 생도대대가 신속하게 372고지를 중심으로 방어준비를 마쳤으나, 개전 당일에는 적의 공격이 가해지지 않았다.

전선에 투입된 첫날을 무사히 보낸 생도대대에 다음날 일찍 지원군이

28)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24쪽.

29)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387~389쪽.

도착했다. 6월 26일 아침 06시경에 수도경찰청 소속의 전투경찰 1개 대대가 도로 건너편 330고지에 배치되었는데, 생도대대를 지휘하던 조암 중령이 이들까지 통합하여 지휘했다. 당시 경찰대대는 99식 소총과 카빈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고, 개인별로 보유한 탄약도 고작 10~20여발에 불과했다. 경찰대대의 무장상태와 전투준비가 미흡한 것을 파악한 대대장 조암 중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먼저 경찰대대가 담당한 330고지의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생도대대의 기관총 1개반을 배속시켜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교차사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였다.³⁰⁾ 또한 경찰대대에 박격포가 없었기 때문에 화력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대장은 중화기 중대장에게 330고지 전면에 대한 박격포 사격지원 임무를 추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날 야간과 새벽에 급편한 방어진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비진지와 보조진지를 구축토록 하고, 이들 진지에 대한 사계청소와 위장을 지시하였다. 또한 “Y형” 도로상에 대전차호를 구축하고, 대인지뢰도 매설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공격해 올 적을 저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생도대대와 경찰대대 모두 인접 및 상급부대와 연락망이 연결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전황과 정확한 적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전방에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³¹⁾

1) 부평리(내촌) 전투

생도대대 전방에서 적의 움직임이 관측된 시각은 6월 26일 오전부터였으나, 본격적인 전투는 오후에 시작되었다. 북한군 제3사단 9연대 예하의 병력들은 오전 10시경부터 생도들이 편성한 방어진지에 간헐적으로 포사격을 하더니, 오후 4시경부터는 소수의 병력이 포천~서울 간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광경이 목격되었다. 적을 발견한 생도대대는 81밀리

30)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388쪽.

31)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25~126쪽.

박격포 사격을 시작했고, 기도가 노출된 적은 일단 산개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약 1개 대대 병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³²⁾ 그런데 적의 공격이 집중된 곳은 생도대대 건너편의 경찰대대 정면이었다. 하지만 방어 진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찰대대는 적과 전투를 벌이며 교전하였으나, 탄환이 바닥나자 모두 철수하고 말았다. 불과 10여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대대에 배속되었던 기관총 2정의 사수와 탄약수로 활약하던 생도들이 적의 집중포화로 희생되었다.

경찰대대를 제압한 적 부대는 곧바로 생도대대를 향하여 공격했다. 적이 정면으로 공격하자, 가장 먼저 81밀리 박격포가 사격을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적의 공격이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적군은 곧바로 추가 병력을 생도대대 측방으로 보내서 공격을 개시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정면에서도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 이후 약 2시간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실시되었다. 생도대대는 적과 교전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탄약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격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81밀리 박격포의 경우 가용 포단은 44발에 불과했고, 그중에서 12발은 연막탄이었다. 개인화기도 개인별로 고작 50여발의 탄약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대장과 분대장들은 적을 최대한 접근거리까지 유인한 등 사격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³³⁾ 특히 생도 제1중대 정면에서는 중대원 전원이 사격진지에서 은폐엄폐하면서 적이 최후 저지선까지 진출하기를 기다렸다가 일시에 사격을 가해서 적에게 큰 손상을 입혔다. 개전 이후 줄곧 남진을 계속하던 북한군이 생도대대와의 전투에서 38도선 돌파 이후 처음으로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한 것이다.³⁴⁾

그러나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서 370고지를 중심으로 한 생도대대의 방어진지가 노출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적의 공격이 거세졌다. 오후

32)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69~70쪽;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4~26쪽.

33)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4~26쪽.

34) 부평리 전투가 벌어졌던 곳 인근 주민의 말에 의하면 “북한군이 여기까지 싸우며 내려오면서 가장 심한 저항과 장시간에 걸쳐 교전을 한 곳이 여기라고 하더라.”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357쪽에서 재인용.

6시가 넘자 적이 생도대대 방어진지를 우회하여 측방과 후방에서 공격할 의도를 보임에 따라 자칫 방어선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대대장은 학교장과 육군본부에 상황을 보고한 이후 새로운 지침을 수령하기 위해서 학교로 복귀하였다. 대대장이 상급부대와 연락하기 위해 부대를 떠난 사이 부대대장이 지휘 하던 생도대대의 전투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탄약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적에게 방어선이 뚫리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리고 박격포와 기관총 등 공용화기의 탄약이 모두 사용되자, 소총과 수류탄에 의존해서 전투를 치러야 했다. 결국 철수하기 직전 약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근접전투는 치열한 백병전 양상으로 치뤄졌고 적의 공격을 저지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생도대대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었다.³⁵⁾

생도들이 적과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고 있던 6월 26일 오후 18:00경, 학교 지휘부는 의정부가 적에게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과 함께, 만약 국군이 의정부에서 철수할 경우 서울 외곽의 창동과 불암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저지선을 구축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대대장에게 생도대대를 즉시 철수시켜 학교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수령한 부대대장은 “19:00를 기하여 현 진지를 이탈하여 즉시 학교본부로 집결한다.”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³⁶⁾ 적의 공세가 잠시 소강된 상태에서 철수 명령이 하달되자, 생도들은 삼삼오오 짹을 지어 육사를 향해서 철수하였다. 그런데 각 예하부대에까지 통신시설이 없어서 철수명령이 동시에 전달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철수 명령을 아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가 적의 공격에 밀려서 철수하는 생도도 적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생도대대의 선두가 학교본부에 도착한 시간은 21:00경이었으며, 대부분 자정이 넘어서 도착하거나, 6월 27일 새벽에 도착한 생도도 많았다. 최초 편성된 방어진지에서 치뤘던 적과의 전투

35) 장창국, 『육사졸업생』, 334~336쪽.

36)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391쪽.

에서는 수준급의 전투력을 선보였으나, 점차 허기와 피로가 축적되자 사고인원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개별적으로 철수한 것이다.³⁷⁾

2) 태릉 전투

6월 26일 밤에 적이 의정부를 장악한 것이 알려지자, 이제 수도 서울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육군본부는 적에게 밀려서 후퇴하는 부대와 후방에서 시간차를 두고 도착하는 부대를 끌어 모아서 창동방어선을 구축하기로 결심하고, 사력을 다해서 방어준비에 착수하였다. 육군사관학교장 이준식 준장에게 생도대대와 포천 방면에서 밀려 내려오는 부대들을 규합하여 서울 북동쪽의 불암산과 육사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여 방어작전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6월 27일 새벽 즈음, 육사에는 의정부가 함락되자 수락산을 지나 후방으로 철수하던 국군 7사단 9연대 일부 병력이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³⁸⁾

육군본부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수령한 이준식 준장은 6월 27일 오전 중으로 9연대 병력과 생도대대를 불암산과 육사를 연결하는 방어선에 투입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먼저 9연대 병력을 불암산 기슭에 배치하고, 생도대대는 불암산 동쪽의 고지로부터 육사에 이르는 낮은 구릉지대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학교장의 지시를 받은 대대장은 전날 전투에서 타격을 입은 각 중대별 인원을 재편성한 다음, 제1중대는 삼육신학교로부터 장기리 지역에, 2중대는 육사 영내 92고지 동쪽에, 3중대는 92고지 서쪽에 배치하였다. 또한 중화기 중대는 교내에 배치하여 전방부대를 지원 토록 하였다.³⁹⁾ 새로운 방어진지에 투입된 생도들은 방어준비에 착수하였다. 오후 14:00경에는 방어진지 편성이 완료되자, 각 중대는 수 명의 전초를 운용하여 적의 접근을 조기에 파악하려 하는 등 적의 전진을

37)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16~118쪽;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4~26쪽.

38) 장창국, 『육사졸업생』, 334~336쪽.

39)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28쪽;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7~28쪽.

저지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하지만 81밀리 박격포와 기관총 등 공용화기 탄약이 부족해서 전방부대에 대한 화력지원이 어려웠다. 또한 치열하게 전개된 부평리 전투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서울을 향해 몰려드는 적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런데 새롭게 편성된 생도대대 정면에 적이 포탄이 가해지기에 앞서, 수도 서울이 함락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창동 방면에서 전해졌다.⁴⁰⁾ 의정부 방어선이 무너진 직후 육군본부가 설치한 창동방어선은 적의 서울 진입을 막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었으나, 6월 27일 오전에 이 방어선이 붕괴되고 말았다. 이처럼 적의 주공에 의해서 창동방어선이 붕괴되자, 육군본부는 미아리에 또 하나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전차를 앞세운 적은 그날 오후부터 아군의 미아리 방어선을 압박하였는데, 불암산과 육사 방면에 배치되어 적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던 생도들의 위치에서 보면 이미 후방에 적 부대가 출현한 것이었다.⁴¹⁾

6월 27일 날이 어두워질 무렵 육사 방면에 위기가 시작되었다. 저녁 18시경에 전방에서 철수하던 아군 병력 일부와 불암산 기슭에 배치되었던 7사단 9연대 병력이 학교로 모여들었다. 퇴계원 방면에서 적이 접근하여 포격을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생도들이 배치된 방어진지에 적의 포격이 가해진 것은 밤 22시경이었다. 이때 시작된 적의 포격은 생도 대대 방어진지에 대한 정확한 사격이 아니라, 경춘선 일대, 92고지 일대, 학교본부와 연병장 등 육사에 대한 전반적인 포격이었다.⁴²⁾ 이로 인해서 학교본부 건물에 불이 붙었고, 생도 내무반에 포탄이 떨어졌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생도대대에 대한 적의 직접적인 압박은 가해지지 않았다. 청량리와 홍릉까지 밀린 국군이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서 적과 치열하게 교전하는 소리와 함께 각종 화기의 섬광이 생도들을 압박했으나,

40)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128~129쪽.

41)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7~28쪽.

42) 장창국, 『육사졸업생』, 334~336쪽.

육사 정면에서 실질적인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⁴³⁾ 서울 동북쪽 방면을 압박한 적이 생도대대의 방어정면에 밀어닥친 것은 6월 28일 새벽이었다. 퇴계원에서 망우리쪽으로 남하하던 적 3사단 일부 병력이 92고지 쪽으로 정찰을 나왔다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기다리던 생도들에게 기습 사격을 받은 후 주춤하더니, 곧 증강된 병력이 92고지 정면을 향해 공격해왔다.

이처럼 서울시내의 전투 상황과 육사 정면에 적이 출현한 상황을 종합한 학교 지휘부는 생도대대가 방어선을 유지하다가 자칫 전멸을 자초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후퇴하라고 지시하였다.⁴⁴⁾ 하지만 후퇴명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학교장이 전령을 통해 하달한 “혼란을 피하여 침착하게 한강을 넘으라.”는 명령이 생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모두 후퇴한다.”거나 “다른 중대는 다 후퇴했다.” 등으로 왜전되고 말았다. 이러한 명령이 전해지자 소대나 분대 단위로 철수하는 생도들도 있었으나, 삼삼오오 짹을 지어 한강을 향해 훌어지는 생도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새벽에 하달된 후퇴 명령이 오전 10시경에 전달되기도 했다.⁴⁵⁾ 한편 생도들 중에는 전선에 투입된 이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계속 후퇴하기보다는 적진에 남아서라도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주장하는 생도도 있었다.

육사에서 철수한 생도들이 한강을 향해 남하하는 경로와 과정 역시 혼란스러웠다. 대부분의 생도들이 양수리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망우리를 지나다가 남하하는 적과 조우하자, 방향을 전환하여 광장리로 이동하여 한강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미 교량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생도들은 작은 나룻배를 수소문하여 가까스로 한강을 건넜다. 중랑천을 넘어 청량리 방면으로 들어간 생도들도 많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적의 포로가 되거나,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다행히 몇몇 생도는 적과 조우하기

43)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16~118쪽;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7~28쪽.

44)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제2권, 656쪽.

45)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132~134쪽.

직전에 뚝섬 방면으로 탈출하여 한강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관생도들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은 생도대대의 장교들이 목적지, 경로, 시간, 부대편성을 명시한 후퇴명령을 하달하지 않고, 무작정 방향과 목적지만 알려주면서 후퇴하라는 완전하지 않은 명령을 하달하였기 때문이었다.⁴⁶⁾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장교들에 의한 지휘계통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소대장과 분대장 역할을 수행하던 생도 1기를 중심으로 비교적 질서 있는 소부대 단위의 철수가 이뤄졌던 점이다.

3) 금곡리 전투

6월 28일에 모교에서 적과 교전을 벌이다 후퇴 명령을 받고 한강에 도착한 생도들이 집결한 곳은 경기도 광천군 동부면 광장리 일대였다. 이곳에 모여든 생도는 약 300여 명 정도였는데, 이 숫자는 개전 직전 전교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생도들은 처음에는 수원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다가, 다시 육군본부로부터 광장리로 모이라는 지시를 받고 한강변으로 모여들었다. 생도들이 이곳에 도착하자 각 부대 병력들이 여기저기에 무질서하게 모여 있었다. 이곳에서 생도들을 지휘한 사람은 부교장 이한림 대령이었는데, 이한림 대령은 먼저 정찰대를 배치하여 적의 기동을 살핀 다음, 생도들에게 방어작전에 유리한 진지를 구축도록 지시하였다. 진지 구성이 완성되자, 생도들에게는 광나루를 건너오는 피난민들을 검문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⁴⁷⁾

한편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위기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한 것은 중국군에서 고위 지휘관을 지낸 경험이 있으며, 6·25전쟁 발발 3주전까지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홍일 장군의 노련한 리더십이었다. 김홍일 장군은 한강교의 붕괴와 더불어 국군의 주력이 한강 이북에서 붕괴되었다고 판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흥 보병

46)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7~28쪽.

47)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16~118쪽.

학교에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한강을 건너온 각 부대의 병력들을 끌어모아서 6월 29일에 드디어 한강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언제 한강을 도하하여 남하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즉시 서울~수원 간 도로에 대한 방어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30일 오후에 광나루 일대에서 피난민 검문검색 임무를 수행하던 육사 생도대대에게 수원으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⁴⁸⁾ 일부 생도는 육군본부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수원 고동동에 도착하니, 학교장 이준식 장군과 참모들, 그리고 개전 당일에 문산방면으로 출동했던 교도대 장병들 중 무사히 철수한 이들이 생도들을 맞이했다. 걸어서 이동하던 생도들은 그날 오후에 판교 근처의 금곡리를 지나던 중 육군본부로부터 긴급 지시를 받고 정지하였다. 이들에게는 수원으로 이동하지 말고 이곳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그리고 7월 1일 아침이 되자 수원에 집결했던 생도들과 학교 교도대 병력, 지휘관 및 참모들이 방어준비를 위해서 금곡리로 합류했다.⁴⁹⁾

7월 1일 오전에 육사 생도대대와 교도대대가 방어진지를 편성한 금곡리는 한강을 도하한 적이 남진할 경우 반드시 지나가야 할 중요한 길목이었다. 따라서 육군본부는 판교-풍덕천-수원에 이르는 방어선을 강화하기로 하고, 육사 학교장 이준식 준장을 혼성 3사단의 사단장으로 임명하여 금곡리 지역에 대한 방어선 강화를 지시하였다. 새롭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준식 장군은 생도대대를 판교와 풍덕천 사이를 오가는 도로 동쪽의 무명 110고지에 배치하고, 대대 지휘소를 금곡리에 두었다. 또한 수원에 집결한 국군 제25연대를 도로 서남쪽의 무명 130고지에 배치하여, 육사 생도대대와 협력하여 금곡리-판교간 도로를 방어하라고 지시하였다. 무명 110고지에 배치된 생도들은 즉시 방어진지를

48)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203~204쪽.

49)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8~30쪽.

구축하고, 도로를 향해 접근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⁵⁰⁾

그러던 중 7월 1일 정오경에 판교 서쪽 방향에 약 1개 대대 규모로 추산되는 적의 선발대가 출현하였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이에 따라 육사 생도대대는 즉시 전투태세를 취했는데, 북한군 선발부대는 판교 서쪽의 낙생 초등학교에 집결한 뒤 별다른 경계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생도대대는 이 순간을 기회라고 판단하고, 60밀리 박격포 2문의 사격을 시작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북한군에게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생도대대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낙생초등학교 전투는 아군이 보유한 박격포탄 240여발이 모두 발사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이 전투에서 적 선두부대를 거의 전멸시키는 전과를 올렸다.⁵¹⁾

하지만 금곡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다음날인 7월 2일에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적이 우세한 포병화력을 앞세우고 생도대대 방어진지에 본격적으로 공격해 왔다. 이어서 적의 보병부대가 생도대대 전방에서 공격했으며, 전투는 곧 치열한 백병전으로 전개되었다. 북한군 선두부대와 생도대대 사이에 지속된 약 3시간의 백병전 끝에 생도대대는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전선을 굳게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날 전투에서 발생한 부상자와 사상자 등 인명손실이 많았고, 보유하고 있는 탄약 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날 8시경에 후퇴하였다.⁵²⁾ 금곡리 동쪽 무명 110고지에서 철수하던 생도대대는 수원으로 이동하던 중 아군 부대들의 방어작전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7월 3일 오전에 수원을 향해서 철수하던 생도대대에 제1사단의 예비대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생도대대는 풍덕천 서남쪽 2.5km 지점에 위치한 237고지에 투입되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⁵³⁾

50)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30~131쪽.

51)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8~30쪽.

52)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16~118쪽.

53)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16~118쪽;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8~30쪽.

7월 4일 아침 일찍부터 생도대대가 치룬 마지막 전투가 개시되었다. 이날은 아침부터 적의 본격적인 남진이 개시되었는데, 오전 전투에서는 제1사단과 생도대대의 분전으로 수원을 향해서 진격하려던 적의 공격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부터 적이 수원 방면에 전차를 투입하였으며, 대규모 병력을 투입함에 따라 더 이상 적의 진출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7월 5일에 생도대대에게 평택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후, 다음날에는 평택에서 화물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⁵⁴⁾

개전 당일 전선에 출동한 사관생도들이 10여일 동안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대전으로 이동하는 동안, 전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7월 1일에 미군 선발부대가 부산에 도착한 이후, 7월 5일에는 오산에서 북한군과 최초의 전투를 치뤘으나, 미군 선발대만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 많은 유엔군의 증원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시간은 국군이 벌어야 했다. 육군본부는 단기간 내 병력 증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이는 신병교육과 초급장교 보충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개전초기에 소총수로 전선에 내보냈던 생도 1기는 아까운 자원임이었다. 이들을 즉시 임관시켜 부족한 초급장교를 보충하는 동시에, 전후방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될 신병훈련을 담당토록 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생도들이 대전에 도착할 즈음, 생도 1기에 대한 임관식이 조만간 거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육군본부로부터 전해졌다.⁵⁵⁾

대전에 도착하기 이전까지는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입은 인명피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다. 대전에 실시된 인원조사 결과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전투참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손실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7월 6일 현재 남아 있는 생도 1기생은 고작 134명에 불과했고,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후송된 인원이 20명 정도였다. 또한 여러

54)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260~261쪽.

55)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31쪽.

차례 이동하는 과정에서 본대에서 이탈했던 약 10여 명의 생도가 뒤늦게 합류하였다. 그 결과 7월 10일 임관식에 참석한 생도는 최종적으로 154명이었다. 6월 25일에 전선에 투입된 숫자가 262명이었으니, 불과 15일 만에 108명의 생도들이 손실된 것이다. 생도 2기의 경우 277명이 출동하여 85명이 전사 또는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⁵⁶⁾

7월 10일 대전에서 거행된 생도 1기의 임관식은 6·25전쟁 중에 실시된 최초의 전시 장교 임관식으로 기록되었다. 정일권 신임 총참모장이 주관한 이 행사에서 육군본부와 학교의 선배장교들은 신임 소위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며 무운장구를 빌었다. 생도 1기 262명 전원에게 임관장이 주어졌는데, 그중에서 전사, 실종, 입원 중인 신임소위는 육군본부로 소속되고, 나머지는 대구, 부산, 마산, 광주, 순천 등 5개지역의 신편 연대에 배치되었다.⁵⁷⁾ 생도 1기가 임관식을 통해 장교로 태어났지만, 생도 2기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육군본부는 이들이 육사에 입교하여 고작 3주간의 훈련만 마쳤기 때문에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육사가 7월 8일부터 임시 휴교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육군본부는 이들을 모두 대구로 내려보내 병력이 부족한 각 부대로 분산배치하였다. 그런데 1950년 8월 초부터 시작된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치열한 혈전으로 전개되다보니 많은 희생자가 속출하였다. 사관생도 신분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한 85명 외에도, 1950년 8월 낙동강방어선 전투를 치뤘던 한 달 동안 55명의 생도 2기가 전사하였다.⁵⁸⁾

1950년 8월에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에 맞서 싸우던 국군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선에서 병력들을 이끌고 싸울 수 있는 초급장교 양성이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각 부대에 흩어져서 싸우고 있던 생도 2기들을 8월 15일에 동래에서 창설된 육군종합학교에 입학시켰다.

56)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26~127쪽.

57)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33쪽.

58)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33쪽.

이후 6주간의 훈련을 마친 생도 2기들은 ‘종합 1기’ 혹은 ‘종합 2기’로 임관하였는데, 이때부터는 생도 2기라는 칭호 대신 종합 1기 혹은 종합 2기로 불렸다. 생도 2기 다수가 포함된 종합 2기는 1950년 10월 21일에 임관하였는데, 보병으로 분류된 102명은 모두 9사단의 창설요원으로 배치되었다.⁵⁹⁾ 그리고 이들은 휴전이 체결되기까지 중공군과 맞서 싸우면서 백마고지의 혈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웠던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4. 불암산 유격대의 활동

태릉전투가 한창이던 6월 28일 새벽, 생도대대에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적 치하에서 유격활동을 결심한 생도들이 있었다. 생도 1기 10명과 2기 3명으로 구성된 총 13명의 생도들은 서울과 모교를 버리고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는 것보다는 인근 불암산에 입산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유격활동을 펼치기로 결심하였다.⁶⁰⁾ 이들은 이후 약 80여일 동안 불암산을 중심으로 유격대 활동 전개하던 중, 4회에 걸쳐 적 후방 교란, 보급기지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서울 수복을 얼마 남기지 않은 마지막 전투에서 대부분 희생되고, 부상당한 대원 1명만 생존

59)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34쪽.

60) 현재까지 파악된 불암산 유격대에 참가한 생도 1기는 김동원, 전희택, 홍명집, 박인기, 김봉교, 박금천, 이장관, 조영달, 한효준, 강원기 등 10명이다. 그러나 생도 2기 3명의 성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후까지 생존했던 강원기 생도의 이름이 1978년에 간행된 공간사에 ‘김원기(金元基)’ 생도라고 표기되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생도 1기 입학자 명단, 육사 10기 동기회 명부, 『불멸탑의 증언』 등을 근거로 볼 때, 1978년의 공간사에 기록된 ‘김원기(金元基)’는 ‘강원기(姜元基)’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536쪽;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307쪽.

하여 후송되었으나, 그 역시 1951년에 사망하고 말았다. 불암산 일대에서 ‘호랑이’라는 암호를 사용하며 활동하던 생도 유격대의 활동을 비밀리에 지원했던 인근 주민들은 이들을 ‘호랑이 유격대’ 혹은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라고 불렀다.⁶¹⁾

생도들이 유격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과정에는 불암사의 주지스님과 인근주민들의 적극적 지원이 크게 작용하였다. 유격대를 이끌었던 김동원 생도는 불교신자였는데, 평소 불암사를 자주 방문하여 윤용문 주지스님과 친분을 쌓은 사이였다. 그런데 6월 28일 태릉전투가 한참이던 도중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자꾸 후방으로 후퇴하는 것은 전세를 역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김동원 생도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동기생 및 후배들과 함께 불암사 주지스님을 찾아가 유격활동의 의사를 피력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전날 불암산 기슭에 배치되었던 9연대 소속의 부사관 2명과 병사 5명이 생도들과 합류하여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⁶²⁾

사관생도 13명과 9연대 소속의 병력 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유격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원 전원이 참석한 투표에서 1기 김동원 생도가 만장일치로 유격대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유격대장은 각 조장을 임명했는데, 제1조 조장에는 조영달 생도, 제2조 조장에는 박인기 생도, 그리고 제3조 조장에는 김만석 중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정보책으로 홍명집 생도를 임명하여 불암사의 주지스님과 접촉을 전담하였는데, 윤용문 주지는 주변 마을의 믿을 만한 신도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유격대에 전달하였다. 한편 불암사보다 높은 곳에 자리잡은 석천암의 김한구 스님은 유격대가 숨어서 지낼 수 있는 동굴 몇 곳을 안내해 주었고, 여러 차례 식사를 제공하는 등 유격대 활동을 지원하였다. 인원과 조직 편성을 마친 후, 휴대하고 있는 무장과 장비를 점검하였다. 생도들은

61) 국방부가 2003년과 2005년에 편찬한 공간사는 불암산 유격대를 당시 불암산 인근주민들이 불렀던 명칭인 “호랑이 부대”라고 수록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2003, 82쪽.;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제2권, 657쪽.

62)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22~125쪽.

대부분 소총과 수류탄만 가지고 입산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9연대 병력들이 배치되었던 진지에서 기관총 3정, 수류탄 50여발, 탄약 3,000여발을 추가로 확보하여 유격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⁶³⁾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는 약 3개월 정도 활동하면서 총 4회의 공격작전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공격은 7월 11일 새벽에 퇴계원에 위치한 북한군의 보급물자 적치장에 대한 기습이었다. 당시 북한군은 전선 전방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보급물을 보내기 위해서 경춘선 퇴계원역 주변 공간에 많은 보급품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불암산 유격대는 이곳을 노렸다. 7월 5일과 8일 야간에 생도 2명이 민간인 복장으로 사전 정찰을 실시하여, 북한군 야적소의 규모와 경계병력, 적재 물품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였다. 유격대를 주력조와 지원조로 나눠서 실시한 첫 번째 전투에서 대원들은 경계가 소홀했던 적의 보급기지를 급습하여 보급품을 불태우고, 약 3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생도 1기 김봉교, 박인기 생도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생도 2기 1명 등 3명이 희생되고, 한호준 생도가 부상을 입는 손실을 겪었다.⁶⁴⁾

7월 31일에 실시된 두 번째 공격의 대상은 창동국민학교와 인근에 설치된 북한군 수송부대와 보안소였다. 유격대원 중 총 6명이 참가한 두 번째 전투에서 대원들은 수류탄과 화염병을 사용하여 적의 숙영지, 보급 차량, 보안부대 사무실 등을 습격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번 공격 작전의 제안자였던 김만석 중사가 퇴각 도중에 적에 의해서 사망하고 말았다.⁶⁵⁾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세 번째 공격의 목표는 생도들의 모교 육사였다. 당시 육사는 적이 의용군 훈련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유격대장

63) 불암산 유격대는 유격대의 구성 취지와 결의가 담겨 있는 ‘유격대 활동수칙’을 정했다. 이를 통해서 생도들은 자신들이 전투를 피해서 불암산에 숨어든 것이 아니라 생도로서 뗃떳하게 적과 싸우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결의하였다. 또한 유격대 운영에 있어서도 대원은 모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되, 일단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유격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22~125쪽.

64)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34~38쪽.

65)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285~291쪽.

김동원 생도는 육사를 습격하여 무고하게 끌려온 학생들을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육사에 주둔하고 있는 적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치밀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했다. 적을 습격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공격방향과 철수방향을 선정해야 했으며, 공격 직후에는 불암산에 대한 적의 수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수락산의 반공인사 은거지로 근거지를 옮기기로 하였다. 8월 15일 야간에 실시된 이번 공격에는 모두 15명의 유격대 대원이 참가하였는데, 공격작전은 교도대와 생도대 막사에 수류탄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계획대로 실시되어 약 5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유격대장 김동원을 비롯한 6명의 생도가 희생되고 말았다.

세 번째 공격을 마친 불암산 유격대가 이동한 곳은 수락산의 반공인사 은신처였다. 이곳에서 생도들은 반공인사들의 환대 속에서 약 4주 정도 숨어 지내면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였다. 조영달 생도를 유격대장으로 선출하고, 차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9월 15일경에는 불암산의 기지로 복귀하였다. 유격대가 불암산으로 이동하는 중 기존의 정보원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육사에 대한 습격 이후 적이 대대적으로 불암산을 수색했으며, 윤용문 주지를 의심하여 연행했다는 소식이었다.⁶⁶⁾ 유격대가 불암산으로 기지로 돌아온 9월 15일에는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되었는데, 서울 외곽에도 유엔 공군의 폭격이 간간이 가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9월 21일경, 불암산에 올라온 정보원이 북한 군이 유엔군의 서울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서 마을 사람들을 화물차에 싣고 북쪽으로 끌고 갈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유격대장 조영달 생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당시 유격대가 보유한 장비는 개인별 소총 1자루와 실탄 10여발뿐이었다. 망설여지는 순간이었지만, 유격대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군대의 역할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작전에 임하기로 했다.⁶⁷⁾

66)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34~38쪽.

67)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22~125쪽.

9월 21일 야간에 시작된 불암산 유격대의 마지막 전투는 매복작전이었다. 대원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내곡리 마을 주변까지 접근한 이후, 도로 주변에 매복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 수송부대가 통과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23시경에 내곡리를 출발한 적의 수송대가 매복진지 앞을 통과할 무렵 소총을 쏘면서 습격하였다. 그때 조영달 생도가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육사 생도들이다. 여러분은 얼른 피하시오.”라고 소리치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탈출하여 적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격대원들은 적과 교전하던 중 탄약이 모두 소모되자, 도망칠 수 밖에 없었다. 흘어진 생도들은 불암산 기지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적의 사격에 전원이 쓰러지고 말았다.⁶⁸⁾ 이처럼 서울 수복을 불과 1주일 앞둔 상황에서 치러진 마지막 전투를 끝으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의 활동은 종료되었다.

마지막 작전에 참가했던 생도 1기 강원기 생도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매복작전 중 오른팔에 관통상을 입고 도량에 굴러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말았으나, 다음날 마을사람들이 그를 발견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후 며칠을 숨어 지내던 강원기 생도는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한 이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951년 7월 10일 부상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육사 생도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했던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유격대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강원기 생도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문병 온 동기생들에게 유격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했고, 때마침 동기생들의 참전 체험담과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남상선이 이들의 이야기를 『불멸탑의 증언』을 통해 자세하게 전달하였다.⁶⁹⁾

불암산 유격대의 활동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은 육사의 노력으로 46년여 만에 확보되었다. 6·25전쟁 중 불암산 일대에서 활약했던 생도 유격대의

68)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304쪽.

69)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305~307쪽.

활동을 40여년 이상 기억하고 있던 사람은 당시 석천암 김한구 주지의 손자 김만홍씨였다.⁷⁰⁾ 불암산 중턱의 바위지대에 위치한 석천암 일대에는 유격대가 근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동굴이 많았는데, 불암사의 윤용문 주지와 친했던 김한구 스님은 유격대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또한 그는 유격대가 활동을 시작하던 초기에 식사와 물을 제공했는데, 당시 7세였던 김만홍씨는 자신이 직접 유격대에게 식사와 물을 날라주곤 했다고 증언하였다.⁷¹⁾ 육사는 김만홍씨의 증언에 힘입어 불암산 유격대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은거지 세 곳을 확인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이를 홍보하고 있다.⁷²⁾ 또한 불암산 입구에는 불암산 유격대의 활동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세워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관생도들의 호국의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

5. 생도 참전전투에 대한 ‘기억’과 ‘기록’

지금까지 살펴본 6·25전쟁 초기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참전과 불암산 유격대의 활동에 대한 내용은 참전자들의 증언과 제시 자료,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육군사관학교가 소장한 역사 자료를 통한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후세에 알려졌다. 그런데 생도 참전전투와 불암산 유격대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데에는 의외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6·25전쟁 도중이나 휴전 직후에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일화들은 국방부와 육군의 공간사가 발행되기 시작하던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에

70)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38쪽; 육군박물관 소장 자료, 〈불암산 유격대 관련철〉 中

71) 육군박물관 소장 자료, 〈불암산 유격대 관련철〉 中

72) “한국전 전설적 육사생도 유격대: 불암산 호랑이 은신동굴 발견”, 조선일보, 1996년 5월 17일; “불암산 호랑이 육사 생도 – 적 기습공격 혁혁한 전공”, 국방일보, 1996년 7월 27일.

대부분 발굴되어 조명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발행된 많은 기록 중 육사 생도들의 참전 전투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전쟁 중에는 육사 생도들의 참전 사실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개전 초기 약 10일 동안 사관생도들의 개별 전투원 신분으로 참전했다는 사실은 전쟁 중 발행된 국내와 외국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전달된 바 없다. 국내 언론에서 육사 생도들의 참전에 관한 기사가 처음 나온 것은 6·25전쟁이 휴전을 맞은 다음해인 1954년 6월이 처음이다. 전쟁발발 4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국방부 교육과장은 신문 기고문을 통해 육사 생도 1기와 2기의 참전 사실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⁷³⁾ 1955년 10월에 정규 육사 1기의 졸업식 기사를 전하던 한 신문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생도 1기와 2기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들의 참전을 상기하자는 기사를 실기도 했다.⁷⁴⁾

이처럼 1950년대와 1960년대 중반까지 생도 1, 2기와 이들이 참전한 전투가 우리 사회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전쟁 중이나 휴전 직후에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려 하지 않았던 소위 6·25세대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찾아내고, 이것을 과장하여 아픔을 치유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프거나 나쁜 기억은 간략하곤 했는데, 1953년 말에 작성된 육사의 소개책자의 경우 6·25전쟁으로 인해서 육사의 교육과정에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만 기술하였을 뿐, 전쟁 중에 육사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⁷⁵⁾ 그러다보니 사관생도 신분으로 전선에 나간 이들에 대한 기록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던 것이다.

73) 박석교, “6·25의 회억 – 최후까지 서울을 지켰다”, 경향신문, 1954년 6월 20일자 2면.

74) 경향신문, 1955년 10월 5일자 1면.

75)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소개, 4285~4286(Korean Military Academy Catalogue for 1952~1953)〉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date, The James A. Van Fleet Papers, Box 90, The George C. Marshall Library, Lexington, Virginia, United States. *Hereafter Van Fleet Paper, Box No.*

전쟁 중에 작성된 각종 기록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상징하는 것은 미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1951년 10월 진해에서 정규 4년제 교육과정으로 재개교한 ‘새로운 육군사관학교’와 ‘새로운 생도들’이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두 번이나 위기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국군의 재편성과 증강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재건하여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초석을 다지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열망이 제임스 밴 플리트 8군사령관에게 전달되어 4년제 육군사관학교 창설로 연결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새롭게 문을 연 육사와 정규 과정에 입학한 사관생도들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생도 1기와 2기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묻히고 말았다. 게다가 육사 졸업생 내부에서도 1955년과 1966년에 발생한 소위 기칭(期稱) 파동에 의해 생도 1기는 육사 10기로 인정받았으나, 생도 2기는 육사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사 출신’이라는 호칭이 부여되지 않았다.⁷⁶⁾ 이들이 모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은 시기가 1996년으로 늦춰진 것도 그런 연유이다.

6·25전쟁 중이나 직후에 작성된 미군의 기록에서 육사 생도의 참전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⁷⁷⁾ 특히 한국군의 성장과 발전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공식 출간물 및 기록물에서도 육사 생도의 참전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⁷⁸⁾ 군사고문단 자료 중 개전초기의 육사에 대한 기록은 북한군의

76) “군 어제와 오늘”, 동아일보, 1993년 7월 27일자 5면.

77)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61), pp. 114~128;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1), pp. 21~35; Harold J. Noble, *Embassy at War* (Seattle &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pp.10~63.

78) “The Korean Military Academy”, RG 338, AG, KMAG, General Officers Report, Box 788, Command Reports, Staff Annex “D”, G-3, January 1953.

공격에 의해 교정이 불에 탔거나, 심하게 폐허가 되었다는 등 짧은 기록이 고작이다. 개전초기에 한국군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진해에서 재개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군사고문단이 작성한 자료는 1946년 5월 1일 개교 이후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나, 6·25전쟁 초기에 생도들이 전선에 투입되었다는 서술은 발견할 수 없다.⁷⁹⁾ 또한 1953년 1월에 진해에서 태릉으로 복귀를 준비하면서 제작된 육사 관련자료에도 전쟁 중에 불타고 파괴된 태릉 교정의 사진만 실렸을 뿐, 생도들의 참전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⁸⁰⁾ 다만 1958년 육사 교수부장의 고문관을 지낸 윌리엄 루츠(William D. Lutz) 중령이 미 육사 동창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6·25 전쟁 중 대한민국 육사 생도들이 교정에서 공산군과 맞서 싸웠으며, 이 과정에서 교정이 불탔고 많은 생도들이 희생되었다.”고 소개한 것이 고작이다.⁸¹⁾

1950년대에 국방부와 육군이 발간한 공간사에서도 사관생도 참전전투의 기록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전쟁 중에 국방부, 문교부, 공보처의 추천으로 발간된 『한국의 동란』에는 “...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보병학교 후보생을 전선으로 파송하게 되었다.”⁸²⁾라고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1955년에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6·25사변사』는 “... 372고지~377고지선에서 방어하고 있는 아 육군사관학교 대대와 경찰 1개 대대를 공격하여....”⁸³⁾라고 기록했을 뿐이다. 물론 이들의 지면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79) “Korean Military Academy Founders Day Celebration”, 30 October 1952, Record Group 338, Military Historian’s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 Files, Box 85,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II, College Park, Maryland, United States.

80) “Korea Military Academy – Permanent Home Muktong Military Area, Seoul, Korea”,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90.

81) William D. Lutz, “Eighth U.S. Army Memorial Library”, *Assembly: Association of Graduate USMA*(Fall, 1959), p.8.

82) 예관수·조동규, 『한국의 동란』, 서울: 병학연구사, 1950, 66쪽.

83) 육군본부, 『6·25사변사』, 서울: 육군본부군사감실, 1959, 73쪽.

생도 참전전투를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겠지만, 이와 같은 제한된 서술은 당시 우리 군대에서 생도 참전전투에 대해서 보여준 관심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던 중 생도참전 전투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68년에 국방부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사』 제2권이다. 전산편찬위원회는 참전자들을 대상으로 생도대대의 출전 과정, 전투 경과 및 사후 처리에 대한 구술을 채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약 4페이지에 걸쳐 생도 참전전투에 대한 공식 기록을 남겼다.⁸⁴⁾ 전쟁이 끝난 지 약 15년 동안 소수의 기억 속에서만 공유되던 사실이 살아있는 기록으로 전환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국방부가 발간한 공간사도 생도 참전전투의 내용을 보완하여 자세하게 다뤘다. 특히 이 공간사는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의 활동과 명단을 포함하여 기술한 것이 특징이었다.⁸⁵⁾ 이후 국방부에서 발간한 1995년과 2005년의 공간사에는 생도 참전전투가 빠지지 않고 기술되었는데, 1990년대 이후의 기술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조사와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⁶⁾

이처럼 사관생도 참전전투에 역사 기록이 1960년대 후반에 갑자기 풍부해지는 과정에는 생도 1기 출신 남상선이 동기생들로부터 참전 기록에 대한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1968년에 전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공간사의 구술자로 참가한 남상선을 포함한 생도 1기생들은 사라져가던 생도 참전전투에 대한 기억을 공식 기록으로 살려낸 장본인이었다. 특히 그는 1978년에 『불멸탑의 증언: 육사생도대 실전기』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개전 이후 출동하는 순간

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1968, 142~145쪽.

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77, 380~384, 528~532쪽. 불암산 유격대의 명단은 이 책의 536쪽에 기록되어 있음.

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1968년(10권 예정, 미발행)과 1976~81년(10권 발행)에 발간한 공간사에서는 생도 참전전투가 자세하게 다뤄졌으나, 1995년에 발행된 『한국전쟁』(총 3권)의 경우 생도대대에 대한 전투명령(121쪽)과 전투배치(155쪽)는 포함되어 있으나, 자세한 전투내용은 기술되지 않았다. 반면 2005년에 발간된 『6·25전쟁사』 제2권에는 10쪽 이상 할애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부터 7월 10일 대전에서 거행된 임관식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불암산 유격대의 활동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후 생도 참전전투에 대한 기록은 6·25전쟁 발발 직전이나 당시 육사에서 근무했던 이들의 자서전이 발간되면서 더욱 보완되었다. 개전 당시 육사의 부교장이던 이한림은 생도들의 전투 참전에 얹힌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⁸⁷⁾ 또한 생도대장을 역임하다 개전 3주 전에 육사를 떠나 수도사단 참모장으로 전쟁을 맞이한 김옹수는 생도 1기와 2기의 선발, 교육 등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추가하였다. 또한 그는 1950년 7월 10일 대전에서 거행된 생도 1기의 임관식에 자신이 참석하였음을 밝히고, 먼저 희생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한 때문에 생도들의 임관식이 눈물바다였다고 소개하였다.⁸⁸⁾

사관생도 참전전투를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곳은 생도들의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이다. 육사는 1977년에 발간한 개교 30주년에 맞춰 발행한 『30년사』에 사관생도 참전전투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후배 생도들에게 알렸다.⁸⁹⁾ 그리고 1996년에 발간된 『50년사』는 그동안 보완된 내용을 추가하고, 불암산 유격대의 활동을 추가하였다.⁹⁰⁾ 특히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생도 참전전투와 불암산 유격대에 대한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애국정신과 불굴의 전투의지를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1997년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들에 대한 연구를 펴냈는데, 이 연구에서 생도 1기와 2기에 의한 전투참전, 불암산 유격대에 대한 현대적 평가를 제시하였다.⁹¹⁾

이처럼 사관생도들이 개전 초기에 참전하여 싸우다 희생된 역사적 사실은 1960년대 중반까지 관련자들의 기억 속에만 머물렀던 ‘제한된

87) 이한림, 『이한림 회상록: 세기의 격랑』, 서울: 팔복원, 1994, 138~147쪽.

88) 김옹수, 『김옹수 회고록: 송화강에서 포토맥강까지』, 서울: 새로운 사람들, 2007, 139~142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군사영어학교 출신 예비역 장성의 구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12, 157쪽.

89)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17~135쪽.

90)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01~130쪽.

91)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1~40쪽.

기억'에 불과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참전자들의 노력에 의해 이 사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계기로 관련 자료가 발굴되고,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짐으로써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6. 생도 참전전투의 분석과 교훈

생도 1기와 2기는 육사를 거쳐 간 졸업생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간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다. 6·25전쟁은 북한군의 기습으로 시작된 국가 위기상황이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관생도를 전투원 자격으로 전선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분석하여 교훈을 얻자는 측면에서 과거를 되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6·25전쟁 초기에 육사 생도들을 전선에 투입하고, 이들로 하여금 치열한 전투를 수행하게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전투 투입 당시 건군 이래 가장 오랜기간에 걸쳐 양성 교육을 받은 생도 1기는 임관을 불과 20여일 앞둔 상태였고, 생도 2기는 입교한 지 24일밖에 되지 않아 고작 제식훈련과 영점사격을 마친 상태였다. 비상사태인 점을 감안한다면 총참모장이 직권으로 생도들을 전선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 채병덕 총참모장의 결정에 대해서 육본 작전부장이 재고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총참모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곧 수긍한 것과, 육사 학교장이 명령을 수령한 이후 별다른 항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⁹²⁾ 그러나 당시 생도들의 전투수행 능력과

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2002, 213~215쪽; 장창국, 『육사 졸

준비 면에서 볼 때, 생도 2기는 당시 우리 군에서 가장 준비되지 않은 전투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전선에 투입한 것에 대한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전시 인재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학과시험, 신체검사, 면접 등 10: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육사에 입학한 우수한 사관생도들을 전투원의 신분으로 투입한 것은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결정임에 분명하다. 전쟁이 개전 1주 만에 자연전 단계에 접어들자, 국군은 각 전선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초급지휘자가 절실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지원자나 가두모집을 통해서 전투원을 보충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이들을 이끌고 실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초급 간부와 지휘자의 부족은 6·25전쟁 내내 국군을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였다.⁹³⁾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전초기에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생도대대를 전선에 투입한 것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생도대대의 전투가 치뤄지는 도중에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사관생도들의 아까운 인명이 손실되었다. 매 전투마다 각 제대별 통신과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희생자가 발생하고, 더 큰 위험을 자초했다. 생도대대가 6월 26일 야간에 부평리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는 대대장의 후퇴 명령이 예하 부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일부 생도들의 육사 복귀시간이 늦어졌다.⁹⁴⁾ 이와 유사한 상황은 6월 28일의 태릉전투 이후의 철수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학교장 이준식 준장은 전령을 통해서 사관생도들에게 한강 이남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하지만 이 명령이 개별 생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모두 다 도망갔다.”는 등 왜곡된 명령으로 전달되었는가 하면, 또한 일부 생도들에게는 5시간이 지나서 전달되기도 했다.⁹⁵⁾ 그러다

『업생』, 333쪽.

93)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31쪽;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83~84쪽.

94) 남상선, 『불멸탑의 증언』, 132~133쪽.

보니 서울이 이미 적에게 점령당한 줄도 모르고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대하며 방어진지에서 전방을 주시하던 사관생도들 중에는 후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이들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생도들이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학교장과 학교 지휘부가 취한 소극적 조치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장 이준식준장의 행동 중 아쉬운 것은 사관생도들에 대한 대전 이동이 7월 5일에야 이뤄진 점이다. 개전 당일에 생도들을 전선으로 투입한 것이나, 6월 27일 오전에 생도대대를 불암산과 육사를 잇는 방어선에 배치한 것은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학교장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하지만 서울이 함락된 이후 한강을 도하한 생도대대가 6월 28일 오후부터 광장리 일대에서 한강방어선 전투에 참가하였고, 6월 30일부터 피난민 검문검색 임무를 수행하도록 방치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당시는 서울이 적에게 점령되었으나, 6월 29일에 미 극동 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의 한강시찰이 이뤄진 이후라서 미군의 참전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우리 군 수뇌부의 일각에서는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주도하는 한강방어선 작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지연작전에 대한 논의가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⁹⁶⁾ 더구나 7월 2일에는 채병덕 총참모장이 해임되고 정일권 장군이 새롭게 총참모장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육사 학교장과 지휘부는 한강 방어선 전투에 투입된 사관생도들을 하루라도 빨리 후방으로 철수시켜야 했을 것이다.

생도대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킬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한강방어선이 어느 정도 안정된 6월 30일 오전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판단하고, 이를 육군본부에 건의해야 하는 사람은 학교장이었다. 하지만 이준식준장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제3혼성사단을 지휘하면서 생도대대를 사단의 일부로 운용하여 금곡리 전투에 투입하였다.⁹⁷⁾ 그리고

95)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8쪽.

96)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30쪽.

이 전투에서 많은 생도들이 희생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생도대대를 5일 정도 빨리 후방으로 철수시켜서 국군방어선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생겨났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다만, 훗날의 전투에서 유능한 초급장교로 활용할 수 있는 아까운 인재들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에 투입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지울 수 없다.

7. 맷음말

6·25전쟁은 6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살아있는 기억이다. 전쟁을 기억하는 많은 경험자들이 아직 우리 곁에 있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전쟁세대와 관련자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제한된 소수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기억으로 보기 힘들다.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과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관생도 신분으로 전선에 투입되었던 육사 생도들의 참전에 대한 기록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소재였다. 만약 당사자들이 소리 높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혹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더라면 쉽게 잊힐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1950년 여름에 사관생도들이 전선에 투입되어 겪었던 10여일의 기록은 살아남았고, 이들이 솔선수범하여 보여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희생정신의 교훈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던 육사 생도들이 전투원으로 전선에 투입된 것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97)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8~30쪽.

상황에서 사관생도를 특별하게 대우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1950년 6월에 무방비로 당했을 때처럼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오늘의 사관생도와 장교 후보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에 투입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사관생도들은 6·25전쟁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조국 지키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선배들의 참전 사례에서 군인정신과 사명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4.1, 심사수정일 : 2013.5.14, 게재확정일 : 2013.5.22)

주제어 :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 부평리 전투, 태릉 전투, 금곡리 전투

<ABSTRACT>

A Study on Korea Military Academy Cadets' Combat Experience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Na, Jong-nam

Korea Military Academy(KMA), opened in May 1946, was the major institution that educated leaders of the ROK Army in its early days. At the very first day of the Korean War in June 1950, however, ROK Army Chief of Staff ordered to send cadets who were studying at KMA to the front line in order to delay North Korean troops advance toward Seoul. With this controversial decision, some 530 cadets were sent to the front line as an individual soldier. Although they fought hard and were able to delay enemy's attack at several places even including at their own campus at Taerung, KMA cadets had to retreat to the south of the Han River with the collapse of ROK Army in June 28th. And after one more bloody battle against North Korean troops in early July, KMA cadets moved to Daejeon where the members of the senior class were commissioned. While fighting against the enemy as an individual soldier for more than ten days, some 200 cadets were killed and missed in action.

This paper also introduces a guerilla force that ran by some cadets. Right after the Taerung Battle in June 28th, thirteen cadets who refused to retreat decided to form a guerilla force around the Bul-am Mountain near the KMA, and resisted to the enemy furiously for almost three months until all members were killed in action.

By analogizing KMA cadets' battles during the first ten days of the Korean War, this paper argues that this story should be a symbolic foundation of KMA's current educational values. This paper tries to find how this recently known stories has been adopted as a part of the official

history of the Korean War. Also this paper suggests to learn some precious lessons from this unknown case: whether Army Chief of Staff's decision to send KMA cadets to the front line was inevitable or not; why the Superintendent of KMA was hesitate to move cadets to a safer place early; and so on. And,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this tragic history should not be repeated in the future and we should prepare for that.

Key Words : Korea Military Academy, Army Cadets, KMA Cadets' Guerilla Force, the Bupung-ri Battle, the Taerung Battle, the Gumguk-ri Battle

